

## 한국형 성격검사 개발을 위한 요인 분석적 연구: MBTI Workshop의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성격특성문장의 수집과 분석

임 승 환<sup>†</sup>

T&C 심리교육컨설팅

대인관계중심의 성격유형론을 근거로 한 경험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형 성격검사의 구인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성격유형 워크샵을 진행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한국의 성인남녀들의 성격, 행동특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의 다양한 특성들을 내용분석하여 척도제작의 기초문항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은 2인의 전문가에 의해 신뢰성을 검증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정상 특성영역 216문항과 문제 특성영역 80문항의 총 296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로 성인남녀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96문항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여 4 유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요인을 정상특성 영역과 문제특성 영역 모두에서 확인하였다(4요인×2영역). 2차로 성인남녀 2,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두 문항영역을 통합한 160문항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가지의 구인을 도출하였다. 그 중 4가지 구인은 내용상 4-유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나의 구인은 성격의 효율적 기능여부를 반영하는 문제 특성 중심의 구인이었다. 5가지 구인의 명칭은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그리고 대인민감성이다.

주요어 :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사고형,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대인민감성

---

임승환은 T&C 심리교육컨설팅 대표임.

†교신저자 : 임 승 환, (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번지, 우성캐릭터199오피스텔 2707호,  
전화 : 02-571-6226 E-mail : tnc@hellotype.com 홈페이지 : www.hellotype.com

국내에서는 1980년대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정신건강, 자아실현 그리고 인간관계 개발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심리학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응용 심리 전문가들이 사회 곳곳에서 전문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 중 상담심리 분야는 대학의 상담센터 중심으로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활발하게 실시해왔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각 지역사회의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기관 등으로 상담심리 전문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유료상담 클리닉이 생겨나고 있고 기업 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개인과 집단을 위한 각종 전문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상담심리 전문가들도 있다.

과거 상담심리학은 개인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진단하여 문제해결과 심리치료 중심의 1:1 접근을 선호하였다. 그에 따라 비정상인 중심의 정신병리 이론을 근간으로 제작된 성격검사를 흔히 사용하였다. 다면적 인성검사(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를 대표로 하는 과거의 성격검사는 검사 사용자의 전문적 훈련의 정도에 따라 결과 해석의 질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신경증과 관련된 증상이 없는 정상인들에게는 거부감을 유발하기 쉽고, 특히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성장을 위한 심리교육적 접근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의 성격을 측정하는 대표적 성격검사(김정국, 염태호, 1989; 김정택, 심혜숙, 1990;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이현수, 1997)들은 외국의 검사를 모태로 하여 빈안 표준화한 것들이므로 한국의 성인남녀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성격검사 제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Hofstede, 1980), 빈안하여 제작

된 성격검사들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개인들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항을 빈안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론과 잘 맞지 않는 이론적 불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사회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상담심리학은 지금까지의 병리 중심의 접근을 벗어나 정상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비병리적인 심리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 언어로 된 성격특성묘사 문항들을 수집하여 문항개발에 활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 이론에 기반한 한국적 성격검사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성격검사 개발을 위하여 한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4가지 대인관계 유형(안영배, 2001; 임승환, 2002)의 다양한 성격·행동 특성자료를 토대로 기초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성격검사의 구인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절차를 활용하였다.

첫째, 대인관계중심의 4유형(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사고형)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격의 5요인 이론(Digman, 1990; Wiggins, 1996)에 따라 대인관계 영역의 중요 차원인 요인 IV. 신경증 영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개선이 어렵거나 취약한 성격측면을 문제 성격특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4유형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정상 특성영역과 문제 특성영역으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두 영역을 통합한 문항 평정자료를 2차로 요인분석하여 개발하

고자 하는 성격검사의 최종적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 방 법

### 대상

#### 사전 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성격검사의 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기에 앞서 성격유형 워크샤를 실시하였다. 워크샤는 기업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성인교육 및 연수활동 중에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총 참여인원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약 30,000명이었다(산출근거: 성격유형 워크샤 1회당 평균 인원 40명, 월 평균 10회 실시, 1년 평균 약 5,000명 × 6년). 참여 대상자들은 주로 국내의 대기업과 각종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다. 남녀비가 80:20, 80%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 소유자,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 1차 예비연구(296문항)

성격유형 워크샤에서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제작한 296개 문항(정상 특성영역: 216문항, 문제 특성영역: 80문항)에 대해 1999년 6월과 7월 에 걸쳐 성인남녀 468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문항들이 4가지 유형에 근거한 요인들을 반영하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150명은 서울에 소재하는 S대학의 공과대학 실험실 구성원들로서 연구자가 실시한 성격유형 워크샤 참여자들이었으며, 187명은 전남 광주에 소재하는 J대학과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K대학에 근무하는 심리학과 교수들의

표 1. 1차 예비연구의 대상자 분포

	빈도	%
성별		
남자	213	45.5
여자	255	54.5
	468	100.0
나이		
10-19세	17	3.6
20-29세	342	73.1
30-39세	62	13.2
40-49세	43	9.2
50-59세	4	0.9
	468	100.0
학력		
고졸	25	5.3
대재	188	40.2
대졸	89	19.0
석·박사 과정	166	35.5
	468	100.0

협조를 얻어 선발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고, 나머지 131명은 부산과 구미에 소재하는 대학의 강사들의 협조를 얻어 선발한 심리학 관련 야간강좌를 수강하는 일반인들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 2차 예비연구(160문항)

296문항을 통한 1차 요인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선정한 160문항에 대해 19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성인남녀 2,149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성격검사의 요인을 확정하고 개념적

으로 정의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1,631명은 서울에 소재하는 4개 대학(S대학, Y대학, C대학, D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심리학 관련 과목 수강생들이었으며, 352명은 부산소재 G대학, 광주소재 J대학, 진주소재 K대학의 심리학 관련 과목 수강생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해당대학의 심리학과와의 협조를 얻어 선발하였다. 나머지 166명은 S전자, L홈쇼핑에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연구자가 실시한 성격유형 워크샷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2차 예비연구의 대상자 분포

	빈도	%	
성별	남자	1,067	49.7
	여자	1,082	50.3
나이		2,149	100.0
	10- 19세	292	13.6
	20- 29세	1,489	69.3
	30- 39세	213	9.9
	40- 49세	137	6.4
	50- 59세	18	0.8
학력		2,149	100.0
	고졸	109	5.1
	대재	1,509	70.2
	대졸	276	12.8
	석·박사과정	255	11.9
	2,149	100.0	

절차

### 사전연구

**성격유형 워크샷:** 워크샷의 소요시간은 기업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연수 및 교육의 일환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진행시간은 평균 5시간(최소 4시간~최대 16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비교적 문제가 적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남녀들이다. 측정도구는 MBTI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성격유형은 참여자가 이론에 의한 자가 추측유형과 MBTI검사 결과유형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과의 토론경험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구체적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MBTI 16가지 유형파악) : 2시간 소요

- MBTI검사 실시
- MBTI의 8가지 선호성 개념 강의
- MBTI 검사 결과 피드백
- 참여자의 성격유형 결정

#### 2단계 (대인관계 중심의 4-유형 체험학습) : 3시간 소요

- 참여자 분류 및 소집단 형성 : 외향-내향 (Extraversion-Introversion)차원과 사고-감정 (Thinking-Feeling)차원 중심의 4집단(ET, EF, IF, IT)으로 구성
- 유형별 집단내 공통점 도출을 위한 주제 토론
- 유형별 토론결과(공통적 성격, 행동 특성) 발표
- 유형별 특성 집단간 비교분석

이상의 2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4-유형별 발표 결과물은 워크샷이 끝난 후 연구자가 수집보 관하여 4-유형의 특성내용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내용분석:** 4-유형 체험학습에서 관찰한 특성 자료와 토론 결과물들을 근거로 하여 유형별 주요 특성을 찾아내었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실시한 워크샵에서 수집한 유형별 공통점 토론 결과 자료들 중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특성묘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세트들을 연구자가 선별하였다(ET: 55세트, EF: 67세트, IF: 125세트, IT: 80세트). 그런 다음 각 유형별로 토론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나열한 후 개념적으로 유사한 내용들끼리 군집하여 특성묘사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이런 작업을 각 주제별, 각 유형별로 반복하여 누적 수집하였다.

표 3에는 4-유형의 다양한 특성들을 참여자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자극으로서 사용한 토론 주제와 그 결과로 탐색되어진 주요 특성내용들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상 특성영역

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정상적이라고 지각되는 특성 내용들을, 문제 특성영역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특성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 문항제작:** 토론주제를 통해 끌어낸 유형별 주요 탐색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특성문항들 중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 문장들은 대표적 한 문장으로 압축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는 심리측정전공 교수 1인(심리학과 교수)과 유료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 1인(심리학 박사)의 내용검토와 자문을 받아 296개의 특성문항을 최초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연구의 편의상 문항 구성시 정상 특성영역과 문제 특성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표 3. 4-유형 체험학습의 토론주제와 탐색내용

구분 영역	토론주제	주요 탐색내용
정상 특성 영역	1.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특성	1. 자신이나 중요 타인들이 쉽게 동의하는 공개적인 대인관계 특성
	2. 주변의 중요 타인들이 자주 지적하는 특성	2. 타인들에게 쉽게 지각되거나 과장되게 느껴지는 사회적 자극으로서의 대인관계 특성
	3. 싫어하거나 관계형성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	3. 자신의 특성과 반대되는 타인의 특성 또는 경쟁적인 유사특성
	4. 일상 대화시 나타나는 언어, 비언어적 특성	4.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언어·행동특성
	5. 전공이나 직업행위와 관련이 적은 일상적 여가, 취미, 스트레스 해소 방식	5. 심리적인 주요 욕구와 정서적 경향성
	6. 선호 좌우명, 자신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유명 인물과 동물	6. 신념, 가치, 태도
문제 특성 영역	7. 타인들의 지적과 반응을 통해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점	7. 과도하게 또는 경직되게 드러나는 역기능적 특성
	8.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나타나는 극단적 행동특성	8. 타인들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문제 특성

으로 대인관계에서 정상적이라고 지각되는 특성 문항들은 정상 특성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문제 특성영역 문항들은 성격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성격기능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문항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문항들은 대부분 내용분석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 특성영역의 문항들 중 약 50%는 대인관계 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인관계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Horowitz et al., 1988)의 한국판 척도(K-IIP: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미발표)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추가 제작하였다. 표 4에 문항구성을 위한 영역과 할당 문항 수를 제시하였다.

### 1차 예비연구(296문항)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96문항(정상특성 영

역 216문항, 문제특성 영역 80문항) 평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작된 문항들이 해당 성격유형을 대표하는 요인을 나타내는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요인분석:** 정상 특성영역 문항집단(216문항)과 문제 특성영역 문항집단(80문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4-유형 워크샷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만든 문항 요인분석 결과가 4유형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간 상호 상관분석:** 각각의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하위요인들의 독립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정상 특성영역과 문제 특성영역으로 구분하여 하위요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 기초문항의 내용영역과 할당 문항수

영역 범 주 특 성	I. 정상 특성영역 문항				II. 문제 특성영역 문항	합계 문항
	일반특성 문항 (토론주제 1, 2 관련내용)	대인관계 선호문항 (토론주제 3 관련내용)	대화패턴 및 여가활용문항 (토론주제 4, 5 관련내용)	가치관, 태도문항 (토론주제 6 관련내용)	약점문항 (토론주제 7, 8 관련 내용)	
외향적 사고형 (Extraverted Thinking)	30	10	10	4	20	74
외향적 감정형 (Extraverted Feeling)	30	10	10	4	20	74
내향적 감정형 (Introverted Feeling)	30	10	10	4	20	74
내향적 사고형 (Introverted Thinking)	30	10	10	4	20	74
합계	120	40	40	16	80	296

## 2차 예비연구(160문항)

2,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60문항(정상특성 영역과 문제특성 영역을 통합한 문항전집) 평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절한 요인개수를 확인한 후 요인을 확정하였다.

**요인분석:** 두 영역으로 나누어 요인분석한 결과를 연구자가 검토하여 통합 선정한 160문항의 평정결과를 토대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타당한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간 상호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들이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요인의 정의: 사전연구와 1, 2차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5가지 요인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 결 과

### 성격유형 워크샷 자료의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4-유형(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사고형)이 대인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 검증할 수 있는 관찰단서가 풍부한 장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워크샷에서 발표된 유형별 토론결과 자료를 분석했을 때 4-유형간에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심리·행동적 특징이 존재하였다(임승환, 2002).

## 1차 예비연구(296문항) 결과

내용분석과정을 통해 제작된 296문항을 리커트(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정을 실시하였다. 4-유형으로부터 도출한 자료를 296문항 제작에 활용하였다. 정상 특성영역(216문항)과 문제 특성영역(80문항) 모두 4-유형과 대응하는 4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치 추정방법(공통요인모델)을, 회전방법은 사교회전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정상 성격특성 영역 216문항의 평정자료를 대상으로 4개의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문항 검토를 한 결과 4-유형의 특성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4요인간의 상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통계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4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은 문제 성격특성 영역 80문항의 평정 자료를 대상으로 4개의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문항 검토를 한 결과 4-유형의 특성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4요인간의 상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통계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4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상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볼 때 정상 특성영역과 문제 특성영역 모두에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특성 영역을 통합한 문항 전집을 만들었다. 각 문항 영역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의미전달상 혼란이 예상되거나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성격검사의 문항수가 100문항이내이므로 1.5배 이상의 문항 수를 포함시키기 위해 연구자 판단에 따라 각 유형당 40문항씩(정상 특성: 30문항, 문제 특성: 10문항) 총

160문항으로 축소하였다. 부록에는 1차 예비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이 구성한 통합문항전집(160문항)이 제시되어있다.

### 2차 예비연구(160문항) 결과

유형의 정상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20문항과 문체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40문항을 통합한 160문항을 리커트(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성격검사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예비연구와 마찬가지로 최대우도치 추정방법(공통요인모델)을, 회전방법은 사교회전 방법을 활용하였다.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160문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검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질적 영역을 둘로 구분

하여 분석할 경우 향후 실제 활용시에도 두 가지 기준을 개발적용 해야함으로 검사의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통합된 160문항의 요인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분석 연구에서는 1차 예비연구에서처럼 4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지 않고, 문체 특성영역의 문항들이 4요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요인이 출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먼저 스크리 검사(Scree Plot)를 살펴봄으로써 적정요인 개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스크리 검사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스크리 검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요인의 개수가 4개 이상일 것으로 보고 4개, 5개, 6개로 각기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요인이나 6요인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고 연구자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문항 군집을 보였다. 그러나 5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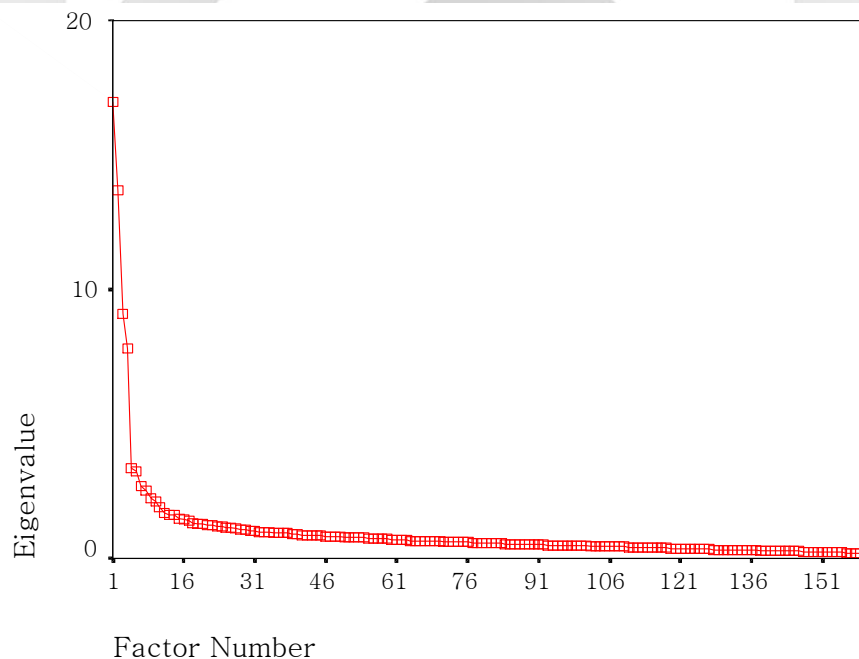


그림 1. 2차 요인분석(160문항) Scree Plot 검정 결과



인으로 분석했을 때는 4개 요인들은 4가지 성격 유형으로부터 도출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다섯 번째 요인은 대인관계문

제 특성 중심의 문항군집임을 확인하였다. 표 5에는 160문항의 요인구조가 제시되어있다.

표 5. 2차 예비연구(160문항)의 요인구조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160					
80	<b>-.729</b>				
6	<b>-.712</b>				
18	<b>.697</b>				
54	<b>-.693</b>				
16	<b>-.683</b>				
2	<b>.679</b>				
48	<b>-.662</b>				
96	<b>-.642</b>				
26	<b>.588</b>				
82	<b>.584</b>				
10	<b>.577</b>				
32	<b>-.573</b>				
22	<b>-.552</b>				
34	<b>.551</b>				
74	<b>.542</b>				
42	<b>.527</b>				
58	<b>-.515</b>				
160	<b>-.504</b>				
66	<b>.496</b>				
95	<b>-.466</b>				
118	<b>-.460</b>				
44	<b>.458</b>				
56	<b>.457</b>				
114	<b>.453</b>				
138	<b>.452</b>				
132	<b>.451</b>				
64	<b>-.451</b>				
70	<b>-.440</b>				
102	<b>.427</b>				
50	<b>.412</b>				

표 5. 계속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160					
112	<b>-.408</b>				
106	<b>.404</b>				
122	<b>-.392</b>				
144	<b>-.369</b>				
130	<b>-.365</b>				
134	<b>.358</b>				
136	<b>.358</b>				
36	<b>.352</b>				
38	<b>.351</b>				
98	<b>.326</b>				
140	<b>.322</b>				
150	<b>.307</b>				
146	<b>-.292</b>				
19	<b>.291</b>				
154	<b>.267</b>				
55	-.235				
67	-.187				
131	-.184				
92		.642			
14		-.639			
30		-.639			
46		-.634			
124		-.601			
100		.597			
108		.590			
68		.584			
60		.583			
20		-.575			
126		-.559			
8		.549			
40		.543			
116		.539			
104		.536			
4		.533			
78		-.517			

표 5. 계속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73		.503			
12		.501			
105		.495			
110		-.454			
62		-.452			
28		-.424			
65		.389			
24		-.371			
158		-.342			
156		.330			
81		.289			
142			.515		
29			.508		
125			.502		
94			.483		
157			.445		
45			.429		
141			.425		
52			<b>.415</b>		
61			<b>.412</b>		
109			<b>.407</b>		
93			<b>.406</b>		
99			<b>.374</b>		
72			<b>.365</b>		
77			<b>.350</b>		
143			<b>.339</b>		
11			<b>.337</b>		
128			<b>.330</b>		
7			<b>.260</b>		
148			<b>.235</b>		
120				<b>.535</b>	
127				<b>.520</b>	
15				<b>.491</b>	
135				<b>.464</b>	
147				<b>.463</b>	

표 5. 계속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23				.461	
27				.453	
35				.451	
152				.445	
23				-.442	
83				.440	
75				.435	
71				.432	
31				.406	
47				.395	
91				.369	
79				.354	
3				.350	
51				.349	
88				.345	
39				.331	
43				.318	
87				.297	
59				.291	
115				.279	
155				.269	
107				.256	
139				.254	
119				.242	
103				.226	
17					.536
33					.529
1					.515
49					.512
90					.499
129					.492
21					.491
25					.485
53					.476
85					.473

표 5. 계속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160					
89					.454
9					.424
37					.424
63					-.414
111					-.412
41					.410
5					.396
84					.390
133					.387
113					.386
76					.385
97					.381
101					.376
13					.371
121					.370
145					.365
86					.335
57					.329
137					.319
117					.317
149					.312
151					.304
69					.285
159					-.238
153					.193
고유값	16.098	12.739	8.296	6.942	2.621
요인명	사교성	신중성	대인민감성	수용성	도전성

표 6. 2차 예비연구 160문항의 상호 상관관계 분석

구분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대인민감성
도전성					
사교성	.166				
수용성	-.044	-.051			
신중성	.142	-.110	.103		
대인민감성	.081	-.019	.074	-.154	

5요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5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6에는 5요인간의 상호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 워크샷을 통해 한국 성인남녀들의 성격, 행동특성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4가지 대인관계 유형의 다양한 특성들을 체계화하여 척도제작의 기초문항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은 2인의 전문가에 의해 신뢰성을 검증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정상 특성영역 216문항과 문제 특성영역 80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96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해서 1차로 요인분석을 하여 4-유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요인들을 두 영역 모두에서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 1차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합 160문항을 선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가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4가지 요인은 내용상 4-유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나의 요인은 성격의 안정성 여부를 반영하는 문제특성 중심의 내용이었다. 5가지 요인의 명칭은 외향적 사고(Extraverted Thinking)유형과 관련된 **도전성**, 외향

적 감정(Extraverted Feeling)유형과 관련된 **사교성**, 내향적 감정(Introverted Feeling)유형과 관련된 **수용성**, 내향적 사고(Introverted Thinking)유형과 관련된 **신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유형과 비교적 무관한 **대인민감성**이다. 각 요인의 개념적 정의를 보면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요인별 문항들은 과거 외국검사의 번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성격특성 묘사들에 비해 한국의 성인남녀에게 훨씬 타당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인관계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격, 행동특성들을 위주로 문항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타인들이 지각하는 특정 개인의 성격특성과 자기보고형 성격검사 응답에 의한 결과간에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고안해 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절차들 중의 한 방법으로 20-50명의 집단 형태로 워크샷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과 관련된 성격검사의 점수를 대조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단과 교육의 병행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성격검사들의 대부분이 기존의 외국검사의 번안에 의해 문항을 만들어 낸 것과 달리, 성격유형 워크샷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인남녀에 대한 직접 관찰법과 개방형 질문법을 통해서 성격특성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국인의 사

표 7. 요인의 정의

요인	개념적 정의
도전성	목적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역경에 대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강인한 속성
사교성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친교적 속성
수용성	타인을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배려하려는 속성
신중성	원칙과 목표에 대해 집중하고 체계적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치밀한 속성
대인민감성	성격의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수준

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항개발을 함으로써 한국형 성격검사개발의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둘째, 성격유형 워크샷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기초문항을 작성하고 조사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성격검사의 요인을 사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래서 특정 요인이 특정유형과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형론에 근거한 체험학습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과도 관련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중심의 4-유형으로 집단을 분류 관찰,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특성자료를 토대로 기초문항을 제작하여 유형론의 이론적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러므로 개발될 측정도구가 대인관계 중심의 유형론적 심리교육 장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문제 특성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대인민감성 차원을 찾아냄으로써 정상인의 정신건강이나 성격의 효율적 기능 여부를 일차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새로이 개발할 성격검사에는 일종의 신경증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폭 넓은 대상에 걸쳐 평정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지금의 연구는 새로이 개발할 성격검사의 구인을 결정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개인들의 성향과 기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성격검사를 제작하기 위한 본격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새로이 개발할 한국형 성격검사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5가지의 특성을 통해 정상인들에 대한 건강한 성격영역과 부적응적인 성격영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유형론에 기초한 심리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척도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정국, 염태호 (1989). *Cattell 성격요인검사 (16PF) 한국 표준화*.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김정욱, 권석만, 정남운.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미발표 논문.
- 김정택, 심혜숙 (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3(1), 44-72.
-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NEO 인성검사 (NEO PI-RS)*. PSI컨설팅.
- 안영배 (2001 3월). *대담함! 인간의 성격*. *신동아*, 376-394.
-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임승환 (2002). *행동유형론(대인관계 중심의 성격유형론) 정립을 위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05-723.
- 탁진국 (1996).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les, R. F. (1970).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orgatta, E. F. (1964).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havioral Science*, 9, 8-17.

- Botwin, M. D., & Buss, D. M. (1989). Structure of act-report data: Is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recaptu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88-1001.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Freedman, M. B., Leary, T. F., Ossorio, A. G., & Coffey, H. S. (1951). The interpersonal dimen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0, 143-161.
- Galton, F. (1884). *Measurement of character*. *Fortnightly Review*, 36, 179-185.
- Guttman, L. (1954). A new approach to factor analysis: The radex. In P. R. Lazarsfeld (Ed.), *Mathematical thinking in the social sciences* (pp. 258-348). Glencoe, IL: Free Pres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London: Sage Publications.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ohn, O. P. (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s.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66-100). New York: Guilford Press.
- Jung, C. G. (1921). *Psychological Types*. Zurich: Rascher.
- Jung, C. G. (197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mmerow, J. M. (1987). *Verifying your type preferences*. CAPT.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 (1998). *MBTI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oto, A. (1989). *Jung's typology in perspective*. Sigo Press, Boston.
- Spoto, A. (1993). *What Jung would be saying about the MBTI and does it even matter?* BAPT Annual Conference, Manchester.
- Thompson, H. L. (1996). *Jung's function-attitudes explained*. Watkinsville, Georgia: Wormhole Publishing.
- Wiggins, J. S. (1996).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2. 12.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2. 5

게 재 결 정 일 : 2003. 3. 7



## **A Factor Analysis for Developing a Korean Ethnic Character Inventory: Collection and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 Descriptors Based on the Empirical Data from MBTI Workshops**

**Seung-Hwan Lim**

**Psychological Training & Consulting**

This study was intended to carry out the basic research for identifying and establishing the factors and the structures of new character inventory utilizing empirical data based on personality typology theory focuse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irst, through the personality typology workshops, the data of personality and behavior traits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who have good mental health was gathered,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By these processes, various traits of Four-type (Extroverted Thinking, Extroverted Feeling, Introverted Thinking, and Introverted Feeling) centered on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analyzed and reduced into basic items to create the inventory scale. These processes were verified by two professionals for reliability, and then a final 296 items with 216 items of normal traits domain, and 80 items of problematic traits domain were constructed. In the first period, 468 male and female adults were studied. With the factor analyses of the rated data for the 296 items, the factors roughly consistent with both normal and problematic trait domains were identified(4 factors×2 domains). In the second period, 2,149 male and female adults were studied. The rated data for the 160 items, which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two domains, were factor analyzed to produce five constructive factors. Four of the five constructive factors were directly related with the Four-type in their contents, and the fifth one was the constructive factor centered on problematic traits reflecting effective functioning of personality. The names of the five constructive factors were 'Challenging related to Extraverted Thinking', 'Sociability related to Extraverted Feeling', 'Acceptability related to Introverted Feeling', 'Prudence related to Introverted Thinking',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with no particular relationship with Four-type.

*Key Words* : *Extraverted Thinking, Extraverted Feeling, Introverted Feeling, Introverted Thinking, Challenging, Sociability, Acceptability, Prudence, Interpersonal Sensitivity*

**부 록**  
통합문항진집 (160문항)

번호	내	용
1.	나는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다.	
2.	나는 누구하고나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쉽게 나누는 편이다.	
3.	나는 예의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좋다.	
4.	나는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평을 듣는다.	
5.	나는 대의명분, 목표에 집착할 때 비정한 면을 보인다.	
6.	나는 사람 사귀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7.	나는 감수성이 높고 민감하다.	
8.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신중하고 침착한 편이다.	
9.	나는 가끔은 냉정하다는 말을 듣는다.	
10.	나는 리더쉽이 강하고 주도적이다.	
11.	나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다.	
12.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행동한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	
14.	나는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해서 끝마무리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	
15.	나는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너무 못하는 게 문제다.	
16.	나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17.	나는 사실과 객관적 논리 위주의 경향성을 가졌다.	
18.	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편이다.	
19.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20.	나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행동하기 보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21.	나는 논리적으로 토론하길 좋아한다.	
22.	나는 나서는 걸 싫어한다.	
23.	나는 상대방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24.	나는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25.	나는 많은 정보와 자료수집으로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	
26.	나는 사람들이 많은 그룹 내에서 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편이다.	
27.	나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다.	
28.	나는 성급하다는 말을 듣는다.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기를 지나치게 원한다.	
30.	나는 인내심이나 지구력이 부족하다.	
3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32.	나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거북하다.	
33.	나는 객관적인 비판을 잘한다.	
34.	나는 모임에서 주로 의견을 쉽게 표현한다.	
35.	나는 남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편이다.	

번호	내	용
36.	나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한다.	
37.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좋다.	
38.	나는 감정이 풍부하며 그것을 말로 솔직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39.	나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40.	나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 후에 일에 착수한다.	
41.	나는 보통 사실과 증거에 의해 결정한다.	
42.	나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43.	나는 원만하고 우호적인 사람과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좋다.	
44.	나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르다.	
45.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한다.	
46.	나는 계획성이나 신중함이 부족해서 실수를 잘 한다.	
47.	나는 싸울만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과 싸우기가 어렵다.	
48.	나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다.	
49.	나는 분석적 과정에 의해 예측하고 결과를 따져보기를 좋아한다.	
50.	나는 도전을 즐긴다.	
51.	나는 유머감각이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52.	나는 목소리가 크고 과격하다.	
53.	나는 결론을 제시한다.	
54.	나는 별로 말이 없고 조용하다.	
55.	나는 조용하고 은은한 음식집이 좋다.	
56.	나는 대화할 때 목소리가 큰 편이다.	
57.	나는 특정 주제나 일 중심의 대화를 선호하는 편이다.	
58.	나는 목소리가 작고 톤이 낮다.	
59.	나는 분위기가 있고 아늑한 곳이 좋다.	
60.	나는 절제력이 강하다.	
61.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시도한다.	
62.	나는 말로 하는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	
63.	나는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지기가 어렵다.	
64.	나는 긴장을 풀고 맘껏 놀기가 어렵다.	
65.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시한다.	
66.	나는 대화할 때 표정, 몸짓, 동작 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67.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	
68.	나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편이다.	
69.	나는 놀 때도 목적있는 활동을 좋아한다.	
70.	나는 이야기 할 때 제스처가 별로 없다.	
71.	나는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평을 듣는다.	
72.	나는 화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열을 받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73.	나는 일을 체계와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번호	내	용
74.	나는 친목회나 회식모임에서 언제든지 재미있다.	
75.	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편이다.	
76.	나는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	
77.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	
78.	나는 즉흥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나의 약점이다.	
79.	나는 결단력을 좀더 길러야 한다.	
80.	나는 활동적이지 못하다.	
81.	나는 원칙을 중요시해서 일단 결정된 것은 바꾸지 않으려 한다.	
82.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 넓은 우정을 맺는 편이다.	
83.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주로 듣는다.	
84.	나는 무엇이든 직선적으로 표현한다.	
85.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대체로 따져보고 듣는 편이다.	
86.	나는 보통 공적인 일이나 업무나 관련된 대화에 기꺼이 참여한다.	
87.	나는 원리원칙만 주장하는 것보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좋다.	
88.	나는 과격하거나 자극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한다.	
89.	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걸 좋아한다.	
90.	나는 추진력이 강하다.	
91.	나는 남에게 폐끼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92.	나는 인내심과 참을성이 강한 것 같다.	
93.	나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가 어렵다.	
94.	나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돌발적으로 감정이 폭발되기도 한다.	
95.	나는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96.	나는 대인관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97.	나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다.	
98.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받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해소를 잘 하는 편이다.	
99.	나는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100.	나는 성실하고 묵묵히 노력하는 편이다.	
101.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102.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편이다.	
103.	나는 매사에 맺고 끊는게 분명했으면 좋겠다.	
104.	나는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편이다.	
105.	나는 일 처리를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려한다.	
106.	나는 매사에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편이다.	
107.	나는 독선적인 사람과 일하는게 감정적으로는 제일 힘들다.	
108.	나는 지속적인 끈기를 발휘하는 성취지향적 인간이다.	
109.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지나친 책임감을 느낀다.	
110.	나는 결단력이나 의지력이 약한 편이다.	
111.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 관점을 고수하기가 어렵다.	

번호	내	용
112.	나는 개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113.	나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즉석에서 대응하는 정면돌파 방식을 쓰기도 한다.	
114.	나는 평소에 이야기할 때 농담이나 여담을 많이 한다.	
115.	나는 친한 사람과 시간보내길 좋아한다.	
116.	나는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 낸다.	
117.	나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표현한다.	
118.	나는 매사에 진지하여 농담을 잘 못한다.	
119.	나는 잘 아는 서너명이 대화할 때가 가장 편하다.	
120.	나는 온순하고 부드럽다.	
121.	나는 대화 중 핵심적인 것을 빨리 얘기한다.	
122.	나는 내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123.	나는 충동을 피한다.	
124.	나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하다.	
125.	나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닌 때에도 경쟁심을 느낀다.	
126.	나는 주위가 산만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127.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	
128.	나는 화가 난 다음에는 그 상대를 용서하기가 어렵다.	
129.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130.	나는 시간이 나면 여기 저기 다니는 것보다 조용히 쉬는 것이 더 좋다.	
131.	나는 앞에서 설치거나 자기과시가 많은 사람을 보면 불편해진다.	
132.	나는 놀기를 좋아하며, 오락, 잡기에 능하다.	
133.	나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편이다.	
134.	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한다.	
135.	나는 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136.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오락, 노래방 등 잡기를 즐긴다.	
137.	나는 직선적인 사람이 좋다.	
138.	나는 위협이나 변화가 닥치면 임기응변 또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39.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140.	나는 사람이 많은 술집이나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41.	나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한다.	
14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질투가 많다.	
143.	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144.	나는 감정표현이 약해 때로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다.	
145.	나는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146.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하기 싫다.	
147.	나는 남을 비판하거나 거절하는게 어렵다.	
148.	나는 무리한 것을 참기가 어렵다.	
149.	나는 반응이 느리고 답답한 사람은 싫어한다.	

번호	내	용
150.	나는 대화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151.	나는 말을 빨리 알아듣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편하다.	
152.	나는 화가 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내면으로 삭힌다.	
153.	나는 작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	
154.	나는 한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	
155.	나는 남을 잘 믿는다.	
156.	나는 문제가 안풀리면 잠시 그 상황에서 물러나 시간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상황을 분석한다.	
157.	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일욕심이 많아서 많은 일을 벌려 놓는다.	
158.	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싫어하며 싫증을 잘 낸다.	
15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일이 너무 많다.	
160.	나는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K C I